41) 세잔느 – 커피포트와 여자

>>거짓된 것을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회화 그림이라는 것을 보여줌.

평평한 표면, 붓의 터치, 사각형의 틀 앞세움. ->특성으로 보여줌.

중성적. 기쁜 표정 아님. 한 여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회화의 조건 보여줌.

여자 앉아있는 것인지 서있는 것인지 어정쩡 캔버스에 평평하게 묘사.

이 세상 모든 것은 원뿔 원형 등 기하학적 입방체로 구성되어 있다. 여자 얼굴 타원형.

고전주의로의 환원. 견고한 고유의 형태를 되찾자. 환영 illusion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모던아트.

왕자비 개인이 아니라 ‘존재’를 표현하고자 함.

앵그르 – 드 브로그리 왕자비의 초상 >> 세잔느 입장에서 환영 illusion. 드레스 아름답게 그림.

미술을 위한 미술. 형식주의 대두

작품전체에서 각 부분들이 만들어내는 미적 효과에 관심을 가진다.

이 것들을 형식요소라고 한다. 선, 형태, 공간, 색, 명암 등

이 형식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질서를 가지고 비례를 이루고 반복, 리듬에 의해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가 중점 두는 것이->형식주의

재현x, 환영x->형태와 색채의 조화와 같은, 내적 질서를 보여주는 미술을 위한 미술

-🡪모더니즘 미술!!

세잔느(후기 인상주의) – 인상주의는 고유의 형태를 무시하고 빛에 의해서 시시각각 변화되는 형태를 포착하고자 한다. 그 결과, 형태가 굉장이 흐트러지게 된다.

후기 인상주의는 눈으로 보는 것만을 좇지말고, 견고한 형태를 찾자.

인상주의를 루브르의 것처럼 견고하게 만들고 싶다. ->고전주의를 다시 도입하고 싶다. But 환원x

나는 푸생을 소생시키고 싶다.

푸생(마르스와 비너스 1630)–17c 프랑스 고전주의의 대가 >>통일감 보여줌. 견고한 느낌 보여줌.

세잔느 ) 회화의 세계는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세계다. 우리의 눈이 화면의 중간에 머무르게.. 화면의 중심을 강조하는 것이 고전주의.

세잔느 <생 빅토와르 산> 1887 >> 깊이의 원근법을 압축시킴.

42) 세잔느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상호 질서 관계 중요시.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처럼 장엄한 구도다(흐트러짐이 없다). 중앙에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과 뒤에 서있는 사람으로 인해 삼각형을 이룬다. 오른쪽 사람은 커튼과 대비된다. 어색함, 불편함이 없는 완벽한 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공간도 밀도있는 덩어리로 구성->하나의 물질이다.

우리의 눈은 캔버스 표면에 부딪치게 된다. 눈이 깊숙히 들어갈 수 없다. 벽에 파이프 담배가 이것은 배경이 아니라, 벽이라는 물질임을 알려줌.

모던아트는 회화의 조건을 드러내면서 이 것이 회화라는 것을 보여줌. 재현, 환영은 버린다.

<?>화면의 삼각형 구도(고전주의적인 매우 안정된 구도). 나무의 휘어지는 선과 더불어 여성이 맞추어져 있으면서 우리의 눈이 밖에 머무르지 않게 된다.

중앙 안쪽에 사람이 있어서 우리의 눈이 그 곳에 머무르게 되어 평면성 유지.->캔버스의 평평한 표면임을 강조.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은 깊이의 원근법 추구->그 것의 환영을 벗어나려 노력.

43) 세잔느 – 기하학적 입방체. 화면에서 재구성되는 것을 더 목적으로 둔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대상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관계들에 조화를 포착하고 독창적인 논리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51) 세잔느 <목욕하는 다섯 사람들> >> 모든 것은 기하학적 입방체로 구성. 기하학적 구조로서 상호관계 조화 독창적인 새로운 논리로, 자기만의 해석으로 보여주고자 함.

윌리엄 부그로 <비너스의 탄생> >> 지극히 전통적. 신화나 전설, 성서의 이야기 그림. 문학과도 부수적. 자연을 재연하여 자연에 부수적. 회화는 재현, 환영을, 거짓된 것을 진짜처럼 보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몰두. 세잔느와 비슷한 시기(떠나가는 전통 붙잡은 사람).

44) 세잔느 <붉은 조끼 입은 소년> >> 긴팔. 뒤의 커튼 형태와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 캔버스 에서 조화있게 새로운 형태를 구성하느냐 문제를 중요시. 소년의 팔이 이 곳에서 긴 형태로 필요. 화가가 독창적인 논리로서 형태를 변환할 수 있음을 보여줌.->형태의 자율성!

형태가 회화를 위해서 실물감을 표현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유롭게 형태가 변형될 수 있다.

45) 세잔느 <조끼 입은 소년>

>> 긴 팔. 긴 팔이 눈에 띈다. 형태 형태의 관계가 눈에 들어옴. ->형태의 자율성

앵그르 <드 브로그리 왕자비의 초상> >>아름답게 닮게 묘사. 붓터치 안보이게 아름답고 매혹적.

47) 정물화->객관적으로 화면의 구조 분석하기 쉬움. 우연 배제. 관찰 중요시.-->세잔느 선호

세잔느 <과일과 수건과 우유통> >>식탁의 선이 맞지 않다.

시점이 제대로 맞지 않다. 르네상스 원근법(정면으로 바라보는 것)🡪다시점 도입!!

여러 각도에서 다시점 도입하니 실제같지 않다.

도입 이유 : 본질을 파악하기 위함->정면만 보고 본질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세잔느는 여기 있는 사과, 냅킨의 형태, 오렌지 이 모든 형태들이 서로서로 상호 관계를 이룬다고 생각. 내적인 법칙 질서를 가지고 있고 서로 관계를 이루고 있고, 재구성 되어야 한다.

다시점 도입->하나의 전통이 나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내적 질서? 내적 법칙? => ‘감각’을 표현한다. 감각적으로 이를 파악해서 재구성해야 한다. 감각 중요시. 눈과 마음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다시점 도입->엄격성 확고성 보여줌

48) 샤르댕 <복숭아의 바구니> 세잔느에 영향을 미쳤다..?

49) <?>, 세잔 <병과 사과바구니가 있는 정물> >> 평면적으로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도 밀도 있는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감 줄 것을 주장. 공간도 하나의 형태화 시키고 있다.

53) 에셔 브라운 듀란드 <타나톱시스의 풍경> >>

캔버스의 평면 x 실제 자연을 보는 것과 같은 착각.

세잔느 <쌩 빅투아르 산> >> 기하학적 구성방법 견고하게 보여줌. 원근 압축되어 있음. 수직의 확고한 선 때문에 캔버스의 평평한 표면이 강조.

55) 피카소 <아비뇽의 처녀들> >> 세잔느의 것보다 훨씬 발전. 기하학적 입방체. 공간 부피감 줌. 본질 파악 위해 다시점. 중앙의 여자 포즈는 고전주의적인 포즈. 고전주의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현대화 시켰음.

미의 전형으로 보이는 이상미 보이지 않고. 얼굴은 아프리카 가면에서 옴.

지금까지 백인 중심의 미의 가치에서 20c 오게 되면서 각 나라 인종마다 미의 규정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됨. 🡪미의 상대성 받아들이게 됨.

인물 기하학으로 분화. 공간 단면화. 전통적인 원근법 배제. 인간 형상의 이상화 버림.

회화의 원리, 구조적 질서, 미의 상대성 보여줌.

세잔느 <수욕도> >> 이 세상 모든 사물은 기하학적 입방체로 이루어지며, 상호 관계 맺으며 이루어져 있다. 형태의 자율성 추구. 세잔느는 형태와 공간이 배경이 아니라 하나의 밀도있는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다.

세잔느->피카소가 훨씬 발전시킴 (형태의 자율성)

58) 브라크 <나무와 다리> >>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묘사 x. 그림은 그자체의 논리, 질서, 독립성 가지고 있다. 회화는 그 자체에게서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 회화는 무엇인가를 재현x 회화 그 자체를 보여주고자 한다.

높이의 원근법!! (가까이 있는건 아래, 멀리 있는건 위에)

->화면의 구조적인 질서와 밀도를 위해 사용, 환영적 깊이감 제거->회화는 평면적으로 된다.

여러 가지 시점에서 보이는 것을 한 화면에 보이는데 용이하다.(높이의 원근법 사용)

에셔 브라운 듀란드 <친밀한 영혼들> >> 환영. 일루젼. 깊이감 있게, 캔버스의 평면이 평평함을 잊게 한다. 깊이의 원근법

59) 브라크 <레스타크의 집> >>높이의 원근법. 이를 통해 여러 다 시점을 한 화면에 표현, 재구성. 재현에서 멀어져 간다. 화면은 훨씬 더 물질화 되고, 평면성으로 발전한다.

빠사쥬 : 눈이 하나하나의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본다.->촉각적이다.

60) 피카소 <칸 바일러의 초상> 1910 >> 칸 바일러는 당시 피카소의 작품을 많이 팔아준 화상.

모든 형태가 파편화되어 재구성. 공간과 형태는 상호관계. 공간과 형태 상호침투 위해선 파편화 될 수 밖에 없다. 사물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적인) 존재 모습을 그려야 한다.

🡪입체주의(큐비즘)!! 1908~1914초(1차 대전 발발 전)까지 유럽에서 파리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

Ex)피카소, 브라크

61) 페르낭 레제 <카드놀이 하는 사람> >> 서양에서 카드놀이 흔한 주제. 강렬한 색조, 긴장감 있게 표현. 형태를 분해해서 재구성. 추상 나타나기 시작.

세잔느 <카드놀이 하는 사람> >>견고함. 벽이라는 물질감. 자신의 회화적 개념 드러남